두 제임스본드

(요1:35-42)

35.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8.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 시쯤 되었더라
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야를 만났다 하고 (메시야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두 제임스본드>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두 제임스본드'

1960년대 초, 우사인 볼트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알려진 자메이카의 세관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미국 여행객이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권을 제시했는데, 그 여권에 적힌 여행객의 이름이 제임스본드였습니다.

자메이카가 1962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아직 영국연방에 속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영국연방과 영국 내에 모든,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럽과 이 서구사회에 아주 유명한 작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이안플레밍이라고 하는 영국 기자 출신의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1953년에 소설을 하나 써 내는데, 그게 바로 '007 카지노로열'이라는 소설입니다.
007 영화가 바로 이 사람의 소설에 기초 되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007 영화가 만들어진 게 63년인데, 53년부터 64년에 죽을 때까지, 56세를 일기로 생을 마칠 때까지 이 이안플레밍이라는 사람이 14권의 007 시리즈 소설을 쓰게 되는데, 첫 번째 작품이 53년에 발표한 '카지노로열'입니다.
자메이카에 있는 한 별장에서 이 책을 쓰는데, 주인공의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007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 MI6 라고 하는 그 첩보국에서 내린 요원의 이름이고, 진짜 이 사람 이름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이름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 별장 서재에 자기가 두고 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서인도제도의 새들'이라는 제목의 책의 저자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제임스본드였습니다.

제임스본드라고 하는 미국의 조류학자인데, 그 책을 두고 읽다가 이 책에 쓰여 진 그 이름을 보고, 너무 평범한 남자의 이름이고 전혀 로맨틱한 분위기가 느끼지 않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이름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기엔 제임스본드가 굉장히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의 사나인데다가, 신출귀몰한 가지가지의 능력을 갖고 있는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그 이안플레밍이 자기 작품에 주인공의 이름을 정할 때는 아주 평범한 그런 이름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류학자에게 허락을 구했겠지요, 이름 써도 되겠느냐고…
흔쾌히 허락을 했고, 그 '카지노로열'이 정말 요즘 말로 대박을 터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007시리즈 소설들이 계속해서 유명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 조류학자 제임스본드와 이안플레밍이 아주 친해집니다.
그래서 이안플레밍의 친구인 이 조류학자 제임스 본드가 친구를 방문하기 위해 자메이카를 들려서 여권을 제출했는데, 그만 세관원들이 그 유명한 007 영화에 나오는 제임스본드의 여권이 딱 나타나니까 깜작 놀란 거지요.
이 제임스본드가 정말로 영화에서 만의 제임스본드가 아니라, MI6 라고 하는 영국 첩보원의 정말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지금 여권을 내밀고 있는 거냐 하면서, 소동 아닌 소동이 일어났었다는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요?
이름은 제임스본드, 조류학자나 007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 제임스본드가 아마 이 조류학자보다 영화 속의 역사에 길이 남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엄청나고, 이거 완전히 히어로 아닙니까?
영웅이잖아요 영웅.
이 영화 속의 007 제임스본드가 조류학자보다 아마 인류사회에 미친 영향력도 더 클 거예요.
그냥 영화다 실제 현실이다 이걸 따지지 말고, 정말 실제 영향력도 영화 속의 제임스본드가 더 크니까, 두 사람을 비교를 해 보면 너무 다릅니다.
007 제임스본드는 이튼 고등학교를 나오고,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3개 국어를 능통하고, 이 사격술과 격투기에 능하고, 여자에게 매력적인 어떤 그런 장점이 있고, 정치 외교 군사문제에 해박한 이런 사람인 반면에, 조류학자 제임스본드는, 사진을 제가 봤는데 너무 평범한 그냥 학자입니다.
우리 교수님들 다 아시잖아요.
고지식하고 자기 분야 밖에 모르고, 더군다나 새! 조류학자이니까 온 세상 쫓아다니면서 새들을 쫓아다니고, 사진 찍고 뭐 녹음하고 이러면서 사셨을 테니까, 이 냉전시대에 무슨 정치 경제 군사 뭐 외교 이런데 관심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조류 새들과 이렇게 시간을 갖는 동안에 무슨 3개 국어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분이지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두 제임스본드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 사도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초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제임스본드만큼이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12사도 중에서 이름을 바꾼 게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 그대로 쓰고, 우리도 자기 이름 그대로 씁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바꾼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조류학자 제임스 본드가 영국 첩보국의 007요원이 되는 그런 영화 속의 제임스 본드로 바뀌는 것과 같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의 바뀜, 정말 뱀이 허물 벗듯이 다른 사람으로의 탈

피, 이 현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 공통적인 변화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지금까지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세례 과정! 거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
그 어린양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세례를 겪게 되면, 이 3개의 과정을 겪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로 바뀐다, 딴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조류학자 제임스본드가, 007 제임스본드로 바뀌는 것과 같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개의 과정을 거칠 때.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 버리는 겁니다.
마치 미국 출신 조류학자가 영국 출신 007 제임스본드로 출신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류학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가 있었을 것이고, 자식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교수 동료들이 있었을 것이고,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007 제임스 본드의 관계는 어떻게 변해버리고 맙니까?
그의 동료는 001 002 … 0011까지, 이런 사람들이 동료입니다.
같은 첩보원들이 스파이들이 동료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 조류학자 제임스본드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007 제임스 본드는 미션을 수행합니다.
암살하기도 하고, 적국의 어떤 음모를 미리 알아서 봉쇄하기도 하고, 갖은 모험을 무릅쓰고 다니면서 상대국의 주요 시설물을 파괴하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물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성령세

례를 받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몸이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변화를 먼저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변화를 입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관계가 주어지기 위해서, 몸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기존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래요.
그걸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 하면 간단하게,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들,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이 몸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관계의 대표가 바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몸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이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어디서 받은 거냐 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몸 대신에 성령님 때문에 맺어지게 되는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몸 때문에 생긴 모든 관계의 단절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부모님의 자식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내가 어떤 아들과 딸의 아빠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엄마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내가 몸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내가 몸이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의 직원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게 바로 물세례와 십자가에서의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 관계가 끊어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베드로가 되리라’
요한의 아들, 그 요한이라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몸 때문에 생긴 모든 관계가, 심지어는 동창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까지 다~ 끊어져 버리는 것이, 물세례와 십자가에서의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그 결과라는 거예요.

물세례가 뭡니까?
내가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을 내 마음으로 움직여 가면서 경영하던 삶을 끝내겠다는 결

심입니다.
이 결심이 없으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 결심, 내가 내 몸을 나로 여기고 붙잡고 내 마음으로 붙잡고, 경영하고 운영하면서 살던 내 삶이, 이젠 나의 냄새가 나는 나의 삶이 이제는 끝나기를 내가 결심하고 소원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업히고, 주님께 업혀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겠다!
이 결심을 가지고 과정을 겪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관계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나에게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관계하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갈 때, 그러면 아직도 죽지 않고 있는 나는, 그 동안 관계를 맺던 부모님과 부부와 자식과 친구와 이 모든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미션입니다.
007 제임스본드가 미션을 수행하듯이, 이건 미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식이 나의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션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내 관계의 대상은 하늘에 다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 자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주님과 연합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내 관계의 대상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관계의 대상이고, 주님이 내 관계의 대상입니다.
이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미션입니다.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식과 내가, 이 몸으로 맺어진 이 관계를 더 이상 관계로 이어가지 않습니다.
자식은 나의 미션이고 아내도 나의 미션입니다, 남편이 나의 미션입니다.

관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내 행동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식이 공부를 안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행동합니다.

공부해라!!

이건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근데 자식이 공부를 안 하는 것을 봐도, 내가 그 자식이 공부 안 하는 모습 때문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속이 상하지만 들어가서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물세례 결심을 하고 내가 나의 삶을 살지 않겠다, 자식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면서 나의 냄새를 풍기지 않겠다, 내 냄새가 나는 내 인생을 계속 끌고 가지 않겠다.

그 결심을 하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연합합니다.

내가 죽은 자다, 다시 얘기하는데 죽은 자다.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성령께서 다시 역사를 해 주십니다.

이 관계가 물세례와 십자가와 그리고 성령세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고 더 심화돼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생활을 통해 우리의 말씀생활을 통하여 강화돼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관계라는 것은 내게 행동과 생각과 요청하는 거예요.

관계없는 사람이 나에게 행동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내 행동이 요청됩니다.

그 행동이 요청되는 가운데, 공부 안하는 자식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는 미션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관계를 하시면서, 나와 관계 맺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자리에서, 내가 할 행동을 미션으로 허락하시면 나는 007 제임스본드가 되어서, 자식에게 미션을 수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이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직장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지요.
어느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거래처 사람들과 내가 상대를 하게 됩니다.
이건 내가 관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거래처와 관계를 맺는 것은 사장님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럼 나는 누구냐?
사장님 얼굴을 그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회사와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니까, 실제로는 사장님이 관계를 맺는 것이고, 나는 사장님의 요청을 따라서 나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사장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장님이 나에게 어떤 걸 요청한다는 걸 잘 듣고, 그 요청에 따라서 거래처 사람들과 미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게 사장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내게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될 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그 거래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끌고 나가 버리는, 자기 모 회사에 대해서는 반역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관계한다는 게 바로 그런 반역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회사, 내 나라… 다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그것들에 대한 나의 행동은 나와 관계 맺는 하나님께서 미션으로 주실 때, 그 미션을 수행하는 것뿐이지요.

나는 자식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물세례의 의미가 내 마음에서 결심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나의 삶을 살지 않겠다’ ‘주의 길을 가겠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 업히겠다 해서 업히면 십자가에서 죽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나는 아버지와만 관계를 맺고, 하늘과만 관계를 맺게 될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은 관계 맺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 행동을 이 세상의 그 누가 그 어떤 사건과 그 어떤 상황이 내 행동을 유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건 아직 물세례와 십자가와 성령세례의 과정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불신앙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나의 행동이 미션처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면 끝내는 거예요.
시키시는 거 하고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경계가 처음부터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세 개의 과정을, 물세례와 십자가와 성령세례의 과정을 반복하고 심화되고 강화되는 동안에, 점점 더 '나'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우선적으로 느끼게 되고, 그곳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미션으로서 주어질 때에, 조류학자였던 자가 007이 되는 것과 같은 변화를 통해서, 새사람의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세례, 십자가에서의 주님과의 연합 그리고 성령세례의 그 의미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는 것, 조류학자 제임스 본드가 007 제임스 본드로 바뀌는 것과 같은, 새로운 사람의 등장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수련과 훈련과 높은 수준의 어떤 연마과정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과정을 겪을 때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지요.
꼭 이런 삶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그저 고지식하게 새만 연구하는 조류학자 제임스본드가, 영화 속에서의 007 제임스본드로 둔갑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변화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세 과정을 거치므로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